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 만든다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 주민들 사업 참여 소득 보장 난개발·민원 등 갈등 해소 22~23일 공청회 열어 논의

신안군이 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이익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게도 소득이 발생해 관련 분규가 줄어드는 등 '에너지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지난 6일 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신재생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

했다. 이 자리에서 박우량 군수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신안군은 1MW 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MW), 대규모 태양광 3건(187MW), 해상풍력 15건(3719MW)이 신청됐고 구상 중인 발전사업 또한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2030년 목표량 48.7GW 가운데 신안군 신청량이 4.5GW로 약 9%에 이른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막대한 개발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로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 및 주민 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군은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안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은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신안군의 설명이다. 실제로 신안군 자라도에서는 3개 업체가 57MW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를 1MW 미만,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및 보상 관련 문제로 지역 갈등이 심각해져 더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가 제정돼 에너지 개발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면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600여만 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또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개발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민주주의의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3곳 인증서

무안군은 '2018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곳에 인증서(사진)를 줬다고 9일 밝혔다.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지역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한 제도로 지역 내에서 2년 이상 운영되고 있고 5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업은 (주)삼진(김동화)과 (주)대경(박연송), (주)에프엔디(홍만석)다. 이 기업은 지난해에만 28명을 고용했다. 김삼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지역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무안군 지적업무량 작년보다 2배 늘어

축사양성화 등 개발사업 급증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무안군의 지적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지적측량과 토지이동정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처리가 7995필지로 전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측량 3287필지와 등록전환 135필지, 분할 3097필지, 지목변경 683필지, 합병 793필지가 정리됐다. 또 한국 국토정보공사 무안지사 접수된 측량 요청 건수는 52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2.3%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지적업무량이 크게 증가한 데

는 불법산지양성화, 불법축사양성화, 태양광발전사업, 옹골지구 택지개발조성에 따른 배후지 전원주택부지 분할, 무안 공항주변 개발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한 결과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지적업무량이 증가한 만큼 처리 기간 지연 및 불친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거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 국토정보공사 무안지사 역시 타 지역에서 10개 팀 이상의 인력을 지원받아 지적측량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제도개선 등 토지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군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무안군 이달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무안군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8월 말까지로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제안이 가능한 사업은 군 발전과 주민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분야의 사업으로 복지실현 및 지역경제, 재난 취약시설 보강 사업 등이다. 마을안길 농로포장공사 등 소규모 축원사업과 특정지역 및 단체, 특정한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안 신청은 군 홈페이지와 농협 등 관공서에 비치된 제안 엽서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검토를 거쳐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함평군 퇴직 공직자 녹조근정훈장 등 정부포상



함평군이 지난 6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서기관으로 퇴직한 정찬득 등 4명이 참석해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사진>

녹조근정훈장은 지방기술서기관 정찬득과 지방서기관 김강남, 지방농촌지도관 김향란, 지방행정사무관 주규진, 지방행정사무관 채경병 씨가 근정포장에는 지방보건주사 조순자 씨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한 평생 공직에 몸담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온 그간의 노력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에서 훈장 도章이 늦어져 퇴임식에서 전달을 못하게 될 경우 별도로 수여식을 개최해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할 방침이다. /함평=황은화 기자 hwang@



신안군 지도읍 선도에 전국 최대 규모의 수선화 섬이 조성된다. 수선화 정원. <신안군 제공>

신안군 전국 최대 규모 '수선화 섬' 조성

지도읍 선도... 기본계획 착수

신안군의 작은섬 지도읍 선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수선화 섬으로 조성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늘푸른 생태환경과 사계절 꽃피는 테마가 있는 '수선화 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수선화 섬 조성 예정지인 지도읍 선도리는 경지면적이 243ha로(전체면적 39% 해당) 160여 가구 27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리시설과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이 잘돼 있어 주로 벼와 보리, 녹두, 마늘, 양파 농사를 짓는 작은 섬이다.

지도읍 선도에는 수선화 여인이라 불리워지고 있는 현복순(88) 할머니가 10여 년 전부터 10여 종의 세계수선화를 앞마당에 심어 매년 3~4월이면 수선화향이 가득, 마을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신안군은 올 가을부터 수선화 섬을 조성해 주민주도형 마을축제는 물론 수선화 구경생산으로 특화작목을 육성, 농가소득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수선화의 꽃말은 자기에, 자존심, 고결, 신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흰색 또는 노랑계 피는 지중해연안이 원산지인 속근초화류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민원전용 휴대폰 개설

10개 민원부서에 14대 배치

신안군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과 공무원의 직접 소통을 위해 '민원 전용 휴대폰'을 개설해 민원처리 부서에 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민원 전용 휴대폰은 주민들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를 선정해 민원처리와 상담민원이 많은 친환경농업과 등 10개 부서에 14대를 우선 배치했다.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민원 전용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토지 거래가 자주 이루어 지는 곳!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곳!
투자 하실분과 일하면서 배우실 분을 모십니다.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